

청소년 위한 종교문화 교육 마련해야

한국종교교육학회 '대화방법과 종교교육' 춘계학술대회서 이정구 교수 발표

불교의 불상이나 기독교의 예수상은 종교를 대표하는 상징적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 공동의 목표를 지향할 수 있는 구심점을 제공한다. 점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특히 불교와 기독교, 두 종교를 대표하는 조형물들이 갖는 원형의 시원(始原)은 다르지 않다. 그러나 두 종교의 조형물은 그 원형(原形)이 헬레니즘 문화에서 시작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들은 자신의 목적성취를 위해 종교의 본질적인 부분을 훼손하고 있다.

이정구 성공회대 교수는 한국종교교육학회(회장 김용표)가 5월 28일 성공회대에서 '대화방법과 종교교육'을 주제로 개최한 춘계학술대회에서 "3-5세기에 나타난 불상과 예수상의 형태 모두 그 기원과 이미지가 유사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교와 기독교는 그 본질적인 내용과 어긋난 길을 걸어왔다"고 지적하며 "모든 종교기관이 협력해 가치관이 형성되는 시기에 있는 청소년들에게 세계종교의 다양성과 차이성을 익히고 체험할 수 있는 종교문화교육의 기회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정구 교수는 '3-5세기에 나타난 그리스도 조상(彫像)과 불상 이미지'의 주제발표에서 예수의 이미지가 최초의 조각으로 나타난 3-5세기를 기준으로 삼아 동시대에 제작된 인도 파키스탄 지역의 간다라 불



상을 비교하며 종교간 문화의 간극을 좁히는 시도를 했다.

상을 비교하며 종교간 문화의 간극을 좁히는 시도를 했다. 이 교수는 "헬레니즘 조각은 플라톤이 지향했던 이집트의 견고하며 이상적인 신체비례를 원형으로 삼았다. 또, 아리스토텔레스의 경험적 실재론에 따른 불륨이 조화된 예술이 헬레니즘 조각의 근간이었다"고 말했다. 즉, 고대 그리스는 비례, 균형과 대칭을 이상적인 미의 기초로 삼았다는 설명이다.

불교미술 양식인 간다라 미술도 헬레니즘 문화가 전해지면서 탄생했다. 알렉산더 대왕의 동방 원정 이후 인도북부의 간다라 지방(서파키



프사마티아에서 발견된 4C 예수 대리석 부조(왼쪽). 하대에서 나온 4C 불상(오른쪽). 이정구 성공회대 교수(가운데).

스탄)에 헬레니즘 문화가 유입돼 형성됐던 것. 인도에 전해진 헬레니즘 문화는 독특한 불교양식으로 발전해 불교적 주제를 그리스풍으로 표현하는 '간다라 미술'이 됐다. 간다라 미술은 물결모양의 장발, 오뚝한 콧날, 인간적인 얼굴 생김새, 깊이 파인 옷 주름 등 그리스풍의 조각기법을 불상 조각에 도입했다.

이 교수는 "헬레니즘 문명이 시작된 것은 기원전 1-3세기이며 간다라 미술은 기원 후 2-5세기이므로 시대적 큰 차이가 난다"며 "후기로 마미술과 초기 기독교 미술, 그리고 불교미술이 지닌 헬레니즘적인 양



식상의 유사점이 시공의 차이를 넘어 공존했다는 점이 흥미롭다"고 말했다. 이정구 교수는 이스탄불 근처 프사마티아(Psamathia)에서 발견된 4세기 경 작품인 예수의 대리석 부조와 같은 시기 하대(Hadda)에서 나온 불상도 비교했다. 이 교수는 "둘 다 젊은 여성적인 모습에 곱슬거리는 머릿결, 의상의 유사성은 양자가 그리스, 로마의 종교적 체계에 있어 유사한 철학적 개념에서 비롯됐기 때문"이라며 "간다라에서 불상을 제작한 지방의 로마 조각가들은 동양의 교사로서 고전시대의 웅변가 유형으

로, 유라시아의 미술가들에게는 고전 시대의 아폴론 형태가 불상의 모델로 자연스럽게 채택됐으며, 예수를 긴 머리의 젊은 청년으로 묘사했던 초기 기독교 미술도 아폴론 상에서 연유했다"고 설명했다.

이같이 불교와 기독교는 두 형태의 기원과 그 이미지가 유사함에도 현대사회에서 나타나는 종교적 양상과 파벌싸움, 이웃종교와의 반목과 전쟁, 교리까지 변질시켜가면서 정치권력과 결탁해오고 있다"며 "불교와 개신교 양대 종교가 이러한 행위에 대해 상호 검열과 격려를 통해 종교의 본질이 변질되지 않도록 해야하고 학생들에게는 다양한 종교문화교육의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한편 각 종교에 나타난 대화와 교육방법에 대해 토론을 나눈 이번 학술대회에는 △대화과 소통의 관점에서 본 이슬람교(박현도 서강대) △대화의 관점에서 본 원불교 교육의 특성(고시용 원광대) △3-5세기 그리스도 조상과 불상 이미지(이정구 성공회대) △동일사상으로 본 대화방법의 이해(조광봉 청심대학원대) △대화방법으로 본 본따의 상담(황수경 동국대) 등 종교에서의 대화방법을 고찰하는 논문들이 발표됐다.

이어나 기자 bothyung@buddhapia.com

"부처님은 치유자·사회개혁가"

퀸, 東大 BK21 초청 강연

4대강 사업, 종교편향, 정부의 압력 등 주요 사회문제가 발생할 때 불교계는 활발한 참여를 보였다. 생명살림불교연대, 민족공동체추진본부, 불교환경연대, 종교자유정책연구원 등 불교단체의 참여가 그것이다.

소송·대승불교와는 달리 사회운동, 정치적 변호 등 새로운 신행패러다임을 제시한 참여불교를 고찰하는 자리가 열렸다.

동국대 BK21세계화시대불교학교육연구단(단장 김용표)은 참여불교재가연대의 후원으로 해외석학 초청 강연회를 6월 1일 동국대 다학관 세미나실에서 개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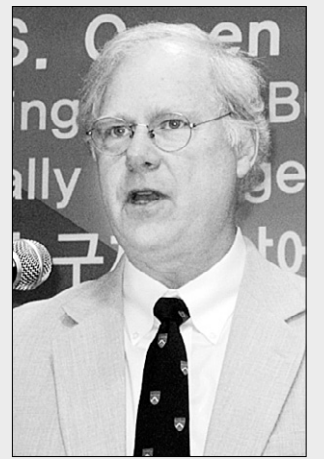
이번 해외석학 초청 강연회에서는 하버드대의 크리스토퍼 퀸(Christopher S. Queen·사진) 박사가 강단에 서, '참여불교에서 구제대상에 대한 의미전환'을 주제로 강연했다.

퀸 박사는 "사회참여불교는 인권, 분배적 정의, 사회발전 등의 지구적 대화의 맥락 속에서 등장하게 됐다. 이러한 개념들은 초기불교(소승), 개혁불교(대승), 종합불교(금강승) 등에서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신행의 전반적인 패턴은 과거에 없었던 것이며 불교전통에서 새로운 장을 여는 것"이라고 말했다.

참여불교의 관점에서 볼 때 부처님은 고통을 어떻게 받아들였을까?

퀸 박사는 "부처님은 육체적, 정신적, 영적, 사회적 고통 등 모든 종류의 고통을 치유하려 했다"고 해석했다.

그는 "부처님은 스승이자 치유자이며, 승가라는 사회제도를 설립했으며, 기금 조성자이며 사



회개혁가였다. 모든 카스트로부터 남녀를 받아들였으며 가장 약명 높았던 암갈리말라까지도 비구로 받아들였다"며 "초기 가르침이 지시하는 사회적 정치적 지침들을 전통적 불교는 효과적으로 밀고나가지 못했지만, 오늘날의 참여불교는 적극적으로 나서서 극복하려 한다"고 평가했다.

퀸 박사는 참여불교가 새로 가져온 것은 '투쟁의 개념'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제는 더 이상 불교인들이 수동적이며 암묵적 제도에 폭력 앞에서 내성적이기만 하다고 볼 수 없기 때문이다. 우리는 고통 없는 세상을 위해 '교육하고 개혁을 요구하고 조직화'함으로써 모두 자유와 깨달음을 성취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크리스토퍼 퀸 박사는 미국 하버드대에서 세계종교를 강의하고 있으며, 아시아와 서구에서 참여불교 권위자로 꼽히는 인물로, 현재 바레불교학센터(Bare Center for Buddhist Studies) 대표, 젠 국제평화유지단(Zen Peacemakers International) 이사를 맡고 있다.

이어나 기자

스스로 규정한 선의 종지에 자승자박

불교문화연구원 '간화선, 철학을 만나다' 봉축 세미나

간화선을 철학적 측면에서 고찰하고 학적 체계를 부여하는 세미나가 열렸다.

동국대 불교문화연구원(원장 박인성)은 5월 28일 동국대 덕암세미나실에서 '간화선, 철학을 만나다'를 주제로 한 봉축세미나를 열었다.

동국대 불교학부 교수 현각 스님은 '간화선의 전통과 그 현대적 수용'을 주제로 기조발제를 맡았다. 현각 스님은 "우리나라에서의 선

수행은 독특하다. 옛날의 모습을 비교적 잘 간직한다는 점에서, 그리고 본래적인 의미를 지나치게 추구한다는 점에서 그렇다"며 "그러나 그것을 추구하는 나머지 준비사항과 점검사항과 과정에 대하여 거의 무시하고 있다. 출가를 어떤 엘리트의 식으로 간주하기보다는 특권의식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은 하루속히 반성해 보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스님은 간화선 수행이 깨침에 대한 망상에 잡히게 하는 점도 우려했다. 스님은 "막연하게 깨치고 나면 무슨 신통방통한 도깨비 방망이라도 얻은 것인 낭 신비스럽게 간주하고 있는 점도 문제"라고 말했다.

현각 스님은 이와 같은 몇 가지 문제의 근본적 배경을 "경전을 무시하는 전통에서 시작됐다"고 말했다. 스님은 "중국의 송대 간화선이 가장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는 경우만 보아도 경전은 전혀 무시되지 않았었다. 그러나 경전을 무시하는 시작은 곧 불립문자에 대한 오해로부터 비롯됐다. 경전을 모르다보니 불립문자라는 말 하나도 제대로 해석하지 못해 본래의 의미를 왜곡해서 받아들였다"고 덧붙였다.

이어 스님은 "스스로 규정한 높은 선의 종지에 대해 스스로가 얽매어 자승자박을 초래한 결과다. 이런 점에서 간화선의 수행은 보리달마의 자교오종(自敎五宗)의 정신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진행된 주제발표에서는 이정구 철학아카데미 원장이 '시간과 실재-정승 고희근의 존재론'을 발

표했다. 이어 신지영 서울시립대 학술연구교수가 '선과 기호'란 제목으로 들뢰즈의 관점에서 선의 의미를 고찰했다.

이어나 기자

선리연구원 학술상 15일 시상

한국불교선리연구원(원장 법진)은 6월 15일 오후 2시 AW컨벤션센터(하림각) 3층 아젤리아홀에서 제4회 선리연구원 학술상 시상식 및 학술회의를 개최한다.

행사에서는 4월 학술상 수상자로 선정된 최선일 문화재청 문화재감정위원이 '17세기 후반 조각승승호

의 활동과 불상 연구'를, 김용태 동국대 불교문화연구원 연구교수가 '한국불교의 종명고·종조론에 대한 역사적 접근'을, 이병욱 고려대 외래교수가 '원태의 사상과 원효의 사상의 공통점 연구'를, 원혜영 대전대 외래교수가 '마라의 악몽'을 발표한다. (02)734-9653 조동승 기자

봉행

慧山堂 明秀大宗師 浮屠搭 奉安法會案内

신록(新綠)이 풍성(豊盛)한 화친지절(花親之節)에 문도형제(門徒兄弟) 여러분 사부대중(四附大衆) 모두가 평안(平安)하시길 기원합니다.

아뢰울 말씀은
우리의 큰 스승이신 慧山堂 明秀大宗師 열반 1주기를 맞이하여 큰스님의 부도탑 봉안법회를 아래와 같이 봉행 하오니 바쁘시더라도 부디 참석하시어 자리를 빛내 주시고 큰스님의 유교(遺敎)를 다시 한 번 우리의 마음에 새겨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시 간 : 2010년 6월 19일 (음 5월 8일) 토요일 오전 10시
장 소 : 능혜사 (주지 법조)
경기도 연천군 전곡읍 양원리 413번지
031)832-4122, 011-9257-4122
주 관 : 혜산당대중사 문도회

문도회장 보운(寶雲) 합장

慧山堂 明秀大宗師 부도탑 건립 추진위원회

제4회 선리연구원학술상 시상식 및 학술회의

한국불교선리연구원이 제4회 선리연구원 학술상 시상식과 학술회의를 개최합니다. 선리연구원 학술상은 불교학을 전공하는 소장학자의 연구기반을 마련하고, 한국불교학 연구의 지평을 넓히기 위해 재단법인 선학원 부설 한국불교선리연구원이 제정한 학술진흥사업입니다. 학술상 상금은 1사할 1논문 지원 프로젝트에 의해 선학원의 소속 사찰에서 소중한 정재(淨財)를 후원하였습니다. 불교학 연구자와 불자님들께서는 참석하시어 자리를 빛내 주시기 바랍니다.

<p>◆1부 : 시상식(2:00 ~ 2:40)</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삼귀의 · 반야심경 봉독 · 인사말씀 (법진스님, (재)선학원이사장·한국불교선리연구원장) · 시상식 · 축사 (인환스님, 한국불교선리연구원 고문) · 축사 (김은선, 보령제약 회장·양현재단 이사) <p>◆2부 : 학술회의(3:00 ~ 5:40)</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좌 장 : 인환스님 (한국불교선리연구원 고문) · 사회자 : 최종석 (금강대학교 교수) <p>제1주제 17세기 후반 조각승 승호(勝浩)의 활동과 불상 연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발 표 : 최선일 (문화재청 문화재감정위원) · 토 론 : 정은우 (동아대학교 교수) 	<p>제2주제 한국불교의 종명(宗名)과 종조론(宗祖論)에 대한 역사적 접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臨濟太古法統과 曹溪宗 전통의 결연 - · 발 표 : 김용태 (동국대학교 불교문화연구원 연구교수) · 토 론 : 박해당 (한림대학교 태동고전연구소 선임연구원) <p>제3주제 원태의 사상과 원효의 사상의 공통점 연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발 표 : 이병욱 (고려대학교 철학과 강사) · 토 론 : 차치석 (동방대학원대학교 교수) <p>제4주제 마라(Mara)의 악몽</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발 표 : 원혜영 (대전대학교 철학과 조빙교수) · 토 론 : 고영섭 (동국대학교 교수) <p>종합토론</p> <p>일 시 불기 2554(2010)년 6월 15일(화) 오후 2시 장 소 AW컨벤션센터(하림각) 3층 아젤리아홀 후 원 (재)선학원·양현재단·정법사·풍주사·보성선원·불교TV·불교방송·불교신문 문의 02)734-9653, 9657</p>
---	---

불기 2554(2010)년 6월

(재)선학원 이사장 · 한국불교선리연구원장 법진 합장